

조사내용은 개인의 연대표와 결혼, 출산, 이혼 및 사별 등의 생애과정, 주택 유형 및 소유권의 변화, 해당 주택의 평면, 그리고 가구의 일반적 사항들이다.

면접시에는 연구의 개요가 적힌 ‘동의서’를 응답자에게 제시한 후 읽고 서명하도록 하여 연구의 취지를 확인시킨 후, 우선 개방적인 질문을 하여 응답자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흐름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후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근거이론 접근법(grounded theory approach)을 활용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다른 연구자에게 몇 차례 중간 점검을 받음으로써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피면접자에게 결과물의 검토를 요청하여 편의(bias)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 례	출생 년도	학력	세대주 직업	가구소득	응답자직업
#1	1954년	대졸	자영업	400~500만원	전업주부
#2	1958년	대졸	자영업	200~300만원	노인간호
#3	1958년	대졸	환경운동	200~300만원	아기돌보미
#4	1959년	대졸	자영업	300~400만원	전업주부
#5	1958년	대졸	회사원	500만원 이상	전업주부
#6	1948년	대졸	퇴직	200~300만원	고시원운영
#7	1954년	대졸	자영업	500만원 이상	전업주부

II. 생애사 연구 및 근거이론 접근법

2.1. 생애사 연구

생애사 접근법은 이야기 형식으로 구술된 개인의 생애를 기초 자료로 삼는 접근 방법이다. 생애사 연구자는, 한 개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의식과 행위양식이 재구성될 수 있고, 개인과 제도와의 관련이나 역사적 연동성도 밝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애사 접근법은 토마스 와 쓰나니 에키(W. I. Thomas & F. Znaniecki)의 폴란드 농민에 대한 기념비적 연구 이래 1920-30년대에 미국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다가 50-60년대에 계량적 조사방법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퇴조를 보였으나, 70년대 이래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그 관심이 부활하였다(Mines, 1992). 콜리(Kohli, 1981)에 따르면, 이러한 생애사 연구의 르네상스는 기존의 환원론적·객관주의적·정태적 방법론에 대항하여, 사회를 보다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주관적 의미부여 과정에 주목하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생애사 접근법은 표본조사와 통계적 분석으로 요약되는 계량적 접근방법이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자 그에 대한 유망한 대안으로서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애사 자료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식과 행위를 중심

축으로 하는 미시적 수준의 자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자료의 활용이나 연구의 목표 역시 미시적 수준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일찍이 밀즈(Mills, 1978)는, 어느 개인의 생애와 그가 속한 사회의 역사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결코 적절하게 이해될 수 없다고 설파함으로써 개인의 전기와 역사가 상호 밀접히 교차된다고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시적 일상사들이 모여서 거시적 역사의 큰 흐름을 형성하며 반대로 거시적 역사는 개인의 일상사를 규제하는 낮은 힘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견 미시적 수준의 연구로 보여지는 생애사 접근법도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서는 사회의 역동성과 역사적 변동을 밝히기 위한 연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주거생애사 연구는 어느 정도 주거사회사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2. 근거이론 접근법

근거이론은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에 의해 60년대 후반 개발되어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의 중요한 지침이 되어 왔다. 이 접근법은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발견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둔다. 즉 이 접근법은 미리 설정한 연구가설의 검증을 통해 이론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코딩작업을 통한 범주의 식별, 범주간 관계에 대한 부단한 비교분석, 핵심 범주의 식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귀납적인 방식으로 이론이 발견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생애사 전반을 이론화시킨다기보다는 주제분석·개념개발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 자료로부터 범주·속성·차원을 찾아내는 개방적 코딩(opening coding)과 2) 범주간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축 코딩(axial coding)작업을 주로 하였다.

III. 자료 분석 결과

응답자 다수에 의해 반복적으로 서술된 주제들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1) 유년시절 주거에 대한 향수 2) 결혼 초 첫 주거 3) 잦은 주거이동의 과정 4) 최종주거로 인식하는 현 주거에 대한 평가

이상 생애사 자료의 분석 결과를 순서에 따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3.1. 유년시절 주거에 대한 향수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전통 한옥이나 개량 한옥에서 거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부 도시로 이주하였거나, 도시에서 태어난 응답자들은 적산가옥 형태의 단층집에서의 기억을 갖고 있다. 유년시절의 주거경험에 대한 서술은 상대적으로 성년 이후의 주거에 대한 기억과 비교해볼 때, 지극히 정서적인 측면에 치중되어있다. 반복적으

로 가장 자주 언급된 범주는 ‘자연’과 관련된 범주였는데, 당시 주택을 둘러싸고 있었던 자연을 주택의 한 구성요소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범주 ‘자연’의 개념들로 언급된 것은, 꽃, 나무, 과일, 시내, 동물 등이다.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그런 집에, 그런 환경에 어렸을 때는 살았던 것 같아요. 시내길을 건너면 수박 참외를 심었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심었어요. 그리고 사시사철 자연을 즐기면서 나무도 하고, 거들어서 살았는데, 그 특유의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아서... (중략) 어머니가 집에 꽃을 참 좋아하셔서 집 자체에도 그렇지만, 주변에 굉장히 많은 꽃나무를 심어놓으셔서 완전히 집이 꽃으로 둘러싸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꾸고 키우고... (#3)

다음으로 유년시절 주택에서 많이 언급되는 범주는 ‘가족’이다. 응답자들이 유년시절을 보낸 시기는 1960년대로 핵가족이나 소가족화로 가족세대가 분화되기 이전, 혹은 과도기적 시기였으므로, 유년시절의 주거 경험에는 조부모를 비롯, 다수의 형제·자매 뿐 아니라 친척들이 자주 언급되었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와 어머니가 주요 개념 어휘로 등장한다. 할머니는 당시 집안의 어린 아이는 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거주하는 생활양식으로 인해,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각별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응답자 세대는 어린 시절 가부장적 질서가 확고했던 세대이므로 집안에서 가사를 전담한 어머니의 역할이 주거에 대한 기억에서 비중있게 나타나고 있다.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 아버지, 4남매, 그리고 집에 일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골방이 있었어요. 아주 작고 진짜 골방인데, 뜨듯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만화도 빌려보던 기억이 있어서 집하면 떠오르는 게 거기에요. ... (중략) ... 그때는 도배도 다 같이 했어요. 신문지로 해놓으면 그날 저녁에 찾는거 글자 배워서 찾는 것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마당이 좁은데도 어머니가 부지런하셔서, 나무같은거 가꾸고 그랬어요. (#4)

밥을 먹으면 마루에서 짝 상 펴놓고 먹고, 뒤에 식탁이 있어서 먹고. 마당 평상 내놓고 밥 먹고 그렇게 대가족 속에서 살았어요. (#3)

9남매예요. 대가족속에서 살았는데, 형제가 많아서 그전에는 많이 어려웠잖아요. 할머니랑 엄마가 출퇴근하듯이 30분 정도 내려오면 여관이 있었으니까 도와드리고 저녁때 오시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놀이터나 마찬가지지. 심심하면 할머니 여관에 놀러가고 그러는 거예요. (#2)

당시에 할머니가 그랬어요. 누구라도 퍼서 줬어요. 제가 음식 같은 거를 예민했던 것 같은데, 잘 체하고 이랬는데. 판 사람한테는 넘기지마라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밥먹다가 항상 하였던 말이 먹기 싫으면 안먹어도 된다. 그래서 할머니 앞에서는 밥먹는 것도 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1)

이러한 자연과 가족이라는 범주는 주거의 정서적이고 감

성적인 측면을 상징하는 주요 범주으로써, 응답자 중 일부는 당시의 주거 경험의 정서가 자신들의 삶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지금도 자연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강하고, 마음을 다치고 뭐가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면으로 독하지 못하고 여러고 그런 면들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 외에 ‘한 가운데 마당’, ‘큰 집’, ‘세를 졌다’, ‘늘렸다’는 식의 어휘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데, 이는 후에 결혼 초 주택에 대해서 ‘셋방’, ‘작은 집’, ‘조그만 부엌’, ‘작은 방 하나’ 등의 개념들로 묘사하는 것과 상반되는, 여유있고, 넉넉했던 주거 여건을 나타내고 있다.

3.2. 결혼 초 첫 주거

결혼 초 첫 주거에 대한 경험은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단칸방에서 임차형태로 신혼을 시작한 유형(#1, #2, #3)이고, 다른 유형은 첫 주택부터 자가로 시작한 유형(#4, #5, #6, #7)이다. 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자가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잦은 주거이동의 과정을 거치는 경향이 있다. 후자의 경우 당시 중산층에 속하면서, 시택으로부터 첫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상당한 주거안정을 보장받은 유형이다. 그러나 두 유형 모두에게서 자주 묘사되는 것은 안락함이나 따뜻함의 정서보다, 좁고 협소하다는 개념 어휘가 많이 등장한다. 임차로 시작한 유형의 응답자의 경우 셋방살이나 주인집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언급된다. 당시 청년이 된 후 도시 생활을 시작하면서, 유년시절에 거주하던 넓고 안락했던 주택으로부터 변화된 환경과 당시 넉넉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강조된 묘사로 보인다. 아래는 임차로 시작한 응답자들의 지문이다.

방하나 부엌하나 있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조금 내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천장에 쥐오줌이 얼룩얼룩한 집. 쥐가 정말 많았어요. 비오면 바가지로 물 퍼내고 그랬어요. 주인논치가 얼마나 심한지, 빨래줄에 빨래를 널어놓았는데, 주인이 싹 치우고 자기네 집 빨래를 그 자리에 싹 널더라고요. (#2)

결혼을 하면서 광명, 철산동에 전세로 임대아파트 살았어요. 광명이 서울하고 경기도 경계선인데 그게 좀 가난한 사람들 많이 사는 데예요. 원래 임대아파트는 임대받은 사람만 살 수 있는 건데, 불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더라고요. 13평짜리였는데 그때 한 800만원 했어요. 임대주택에서 세를 주면 안되는 거니까, 한밤중에 이사를 갔었어요. 그 시대만 해도 계약이 2년짜리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게 없어서 주인이 6개월이라도 나가려면 나가야 하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사 나올 때도 한 밤중에 나왔어요. 그때가 새벽 5시인가 사람 다니지 않을 때 나왔었어요. (#1)

결혼 전까지는 집에 대한 개념이 내가 형성한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만들어 준 데서 살았잖아요. 아무 개념이 없어서. 어떤 남의 집, 전세 살은 적도 없고, 남의 구애를 받고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주인하고 같은 출입문, 화장실을 쓰는 거를 원하지를 않으니깐, 300으로 어디 그런 데를 구해요. 없지. 시흥 쪽에 빌라에 지하. 지하로 들어간거야. 빌라는 그럴 듯한 집인데, 지하는... 그런데 처음 가봤지. 깜깜해요. 들어가면. 진짜 깜깜해. 반지하도 아니고 그냥 지하야. 조그마한 창문하나 뚫려있어. 깜깜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살게끔...6개를 만들어놨더라고. 1층에 딸린 지하였나봐.. 시골 화장실같은 그런 화장실 있죠. 처음 가 본 화장실이야. 그래도 우린 그냥 남편하고 주인하고 독립된 공간이고 하니까. 몇 개월 못 산 게 도독을 2번이나 맞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사가려고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언니네 집에 갔어. (#3)

한편 자가로 시작했던 응답자들은 임차로 시작한 응답자들이 가진 주거불안의 요소는 나타나지 않으며, 전자에 비해 구체적인 주택외 외관과 평면적 요소를 묘사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였다.

결혼하고는 18평 아파트. 10층짜리던가. 근방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였대요. 삼익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일 끝집이라 3층. 끝집이라 좀 추웠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거실하고 안방하고 방이라고 해야 할지 거실이라고 해야 될지. 미닫이 있는... 아주 간단한 집이었어요. 안방. 건넌방은 서재처럼 꾸몄어요. 그때는 식구가 없었으니깐. 옛날 화장실이었고. 이때는 안양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없었어요. 결혼하고 아파트 살았죠.. 남편 부모님이 사주셨어요.(#4)

단층집, 문화주택이야. 1층 슬라브집. 반듯한 신축집이었어. 그 때 집장사들이 지어놓으면 똑같은 집을 새 부지에 개발해서 쪽 지어놓았어. 채소밭에 똑같은 집 지어놓으면 그중의 하나 산거야. 당시에 신혼부부들이 집 사는거 흔하지 않았는데, 다들 부러워했어. 그러니까 결혼해서 세는 아파트 들어갈려고 기다리느라 서초동에 산 거 외에는 안 살았지. 첫 애가 거기서 태어났지. 외관은 빨간 벽돌이고 지붕은 반듯하고. 방이 셋. 마당도 있었고. 1층 단독주택이지. 바깥쪽으로 문간방처럼 들어가는 셋방이 있는데, 세주고 나니까 방 2개 썼어. 부엌에 방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걸 식당으로 썼는데, 식당으로 안 쓰면 방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문화주택이니까 침대도 사고 소파도 사고 그랬어. 입식으로. (#6)

신혼집은 시흥에 단독주택을 마련해주셨어. 양육같은 집. 2층은 아니고 방 3개에 가게가 한 2개 있는 집을. 어머님을 땅을 사서 직접 집을 지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한적했으니까. 두 방은 기름보일러를 하고 한 방은 연탄을 하게끔 지어주셨어. 내부는 아파트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대문들어가면 헐판 있고, 마루 있고 방 있고 화장실있고 부엌 있고, 또 2층 올릴 수 있게 해놓으셨더라고 우리집 산 사람은 2층을 지어 들어갔다고 해. 그 당시 1층이었지만 올릴 수 있게 해서. 3년 정도 살고 아파트로 이사갔어.(#7)

응답자의 다수가 성년 이후의 주택을 언급할 때, 첫 주택에 대해서는 그 인상이나 생활의 기억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는 반면에, 두 번째 주택부터는 매도하고 매수하는 과정상의 설명으로만 압축하는 경향이 있었다. 생애과정

에서 첫 주택이 갖는 의미가 여타의 주택에 비해 남다른기 때문인지, 혹은 면접의 과정상에서, 잦은 이동을 언급하면서 두 번째 주택부터는 속도감있게 설명이 전개되는 기술적인 차원의 이유인지는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는 일반화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며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3.3. 잦은 주거이동의 과정

다음은 신혼 첫 주택 이후부터 현재의 주거에 이르기까지 발생된 잦은 이사와 매도와 매수 과정에 대한 주제이다. 주요 범주는 이주 동기와 용자 및 자금조달, 그리고 생애 첫 자가주택 마련이다. 특히 임차로 첫 주택을 마련한 유형은 이후 자가주택을 마련하기까지 6개월~2년 단위로 임대주택을 전전하면서 잦은 주거이동을 하게 된다.

5년동안 6개월 단위로 이사를 다녔어.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었었거든. 그래서 집을 끝내 샀는데, 그때 은행돈도 받고, 사채도 쓰고, 친척 돈까지 빌려서 반포아파트 18평짜리를 산거야.(#4)

그 다음에 안양에 연립. 광명보다 안양이 더 싸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더 보태서 가니까 27평 방 3개짜리 전세가 되더라구요. 거기서 전세를 2년 살다가. 그 다음에 의왕시로 갔어요 3층짜리 다세대. 한 18평 짜리로 전세 들어갔었어요. 시흥에 사업체를 하나 얻어갔고 하고, 그러면서 그 옆으로 근처에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허물어지는 연립이었거든요. 값이싼 연립을 찾아야 되었으니까요. 돈은 전부 사업하는 데 다 넣어버렸으니까. 거기도 한 2년 살다가 주인이 이사가라 해서. 안양의 관악역 그때부터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5층짜리 거기가 25평 방 3개짜리에 살았거든요. 아, 4층에 살았구나. 거기가 4층에 계단이 오르고 내려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결혼해서 6년동안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다가 시흥에서 임신이 되자마자 이사를 가라하는 바람에 이사를 가서 배블러서 4층짜리 왔다갔다하고, 병원에도 서울차병원까지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로 다니다가 거기도 우리가 집을 좀 싸게 들어갔었어요. 들어갈 때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었었나봐요. 3년 되니까 또 주인이 전세값을 많이 올리더라구요. 계속 있으려면 천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더 보태던가 나가던가 계약은 2년기간 보장되던 시기라 2년 살았는데, 돈은 사업하는데 다 들어가버렸으니까, 그 돈으로 살아야 하니까. 다세대로 갔어요. 안양에 있는 박달동 다세대. 거기도 한 20평 정도 될 거예요. 관악아파트에 있을 때 가격이 좀 싸게 있는 바람에 그 가진 돈으로 이사갈려 하니까 안양의 박달동은 평수가 작더라구요. 방은 세 개인데 부엌 겸 거실이고 거기 살다가. 거기도 사 연이 많아요. 그 집도 부동산에 나와있는 중에 가장 가격이 싸게 나와있더라구요(#1).

1981년에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2년의 전세기간을 보장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임차인은 거주기간이 보장되지 않아서, 6개월~1년 단위로 특정한 이주동기가 발생하지 않아도, 본인의 이주의사와는 상관없는 임대료 인상이나 집주인과의 불화 문제로 이사를 해야 했다. 그에 반해, 자가주택을 일찍이 마련한 유형의 경우 이주 동기는

자녀교육 문제나, 주거규모나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를 다녔다. 혹은 사업자금을 대기 위해 집을 매도하고, 전셋집이나 그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을 구해서 들어가기도 했다. 이는 당시 1980, 90년대에 지속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여, 그 차액이 사업자금에 보탬 만큼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아파트로. 그때 거기 허허벌판에 아파트를 짓는데 아빠가 가서 보고오더니 거기에서 좋을 거 같다고 가자고 하는데 난 전혀 모르는 동네라. 우물쭈물하는데 프리미엄이 4백이 되더라고 그래서 얼른하자고 하더라고. 이 집을 팔면, 아빠가 그때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아파트를 사고 사업자금이 나올 정도였어. 사업자금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줄인다고 산 거 였는데 지금 가치로는 거기가 훨씬 높잖아요. 거기 그래갖고서는 팔고 더 안으로 들어갈려고 송파로 그쪽으로다가 그때도 이거 팔아서 반이 남을 정도로 주택이 한 2천만원에 팔아서 이거 3천하고 3천정도 남으면 한 몇 년 살으니까 6천되고 새로 분양을 받아서 또 나머지가 남더라고. 그때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에 돈이 계속 들어다니까 나머지 자금은 사업으로 다 들어갔지. 애기아빠가 선견지명이 그렇게 있으신가봐. 나는 그런 거 잘못하는데, 정이 붙을 만하면 가자고 하더라고. 따로 저축할 여력도 없었어요 가져오는 것도 얼마안되고. 집을 팔아야 차액이 남기는 그 시기라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집을 옮겨서 환경이 덜한 곳으로 옮길 수 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 가고 보면 나쁜 환경이 아닌게 되었지.(#7)

3.4. 최종주거로서 현재주거에 대한 평가

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나이는 50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 교육이 끝난 자녀성년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현재 주거 상황은 규모나 소유권 측면에서 7명의 응답자 모두 만족하고 있었으며, 최종 주거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거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향후 이사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혹시 나중에 자녀가 출가할 때 자녀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전략으로 이사를 염두해두고 있다. 심적으로는 노년기의 주거로 교외의 전원주택을 희망하고 있지만, 문화시설과 의료시설 및 자녀세대와의 접촉을 고려하여 현재 주거의 입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원하고 있었다.

난 (여기서) 나이들어서까지 살려고 그래. 가격 오르는 것은 신경 안 쓰는데, 8년이 되니까. 오래 되서 수리할 데가 생겨.(#7)

지금은 좋아 이리 온게. 여기는 낫설지도 않고. 십여 년만에 왔는데 낫설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계속 살아. 다 부자되어있어. 무리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나이 드니까 마음 비우게 되더라고.(#6)

옮긴다면 10년 안에 옮길려고 해요 지금 56평인데 쌍둥이 중의 하나가 유학갔어요. 줄여도 되지 않을까. 복닥복닥 작은 집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은 구상이 많아요. 사실 여기가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산 밑이라 좋고. 문예회관 많이 이용하거든요. 운전할 못하니까, 마을버스 많이 다니니까 편하고, 하지만 자꾸 마당이 있는 집 많이 생각해요.(#4)

저는 이 집이 어느 정도 나가니까, 나이들면 이런 집 안사니까, 이 집 팔아서 자식 좀 주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가던가 자식을 좀 줄 생각인데, (#1)

IV. 주거생애사에서 나타난 세대적 특징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1954~1961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을 대상으로 주거생애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 출생시기의 집단(cohort)의 특징은 청소년기에 유신 시대를 중요한 역사적 경험으로 내면화시킨 세대로서, 흔히 베이비붐세대라 불리는 수적다수집단으로 언제나 과밀과 과잉의 통과의를 거쳐 온 혹독한 경쟁을 경험한 세대이다.

저희 시어머님이 38살일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5명이었는데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야간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알아서 살은 거예요. 저희 남편도 중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신문배달하고 오전에 직장다니고 야간대학다니면서 그렇게 집에서 자본 적이 없대요.(#1)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집단주의적, 권위주의적 특성은 약하지만, 여전히 가정내 성역할을 중시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가족주의 성향이 강하다.

제 생각은 자식에게 부모가 좀 대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자식들이 기반잡고 생활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1)

아들도 용인 살 때 보면, 분가안하고 산다고 했어. 돈 모아서 집살 때까지는 같이 산다고 했지. 그랬는데 머. 그 때 가서는 분가시켜야지. 집 팔아서 조금씩 줘야지. 정말 너무 없이 시작하면 늘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5)

완전히는 아니고 자식들 집살 때 조금은 도움을 줘야겠지. 아파트 분양권 하나 에이름으로 했다가 아들이 외국서 안들어오겠다고 하면, 필요없을 것 같아서. 그건 없었어.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세놓고 하고 들릴 수 있을 거 같아.(#7)

V. 결론

본 연구는 주거생애사 자료를 활용하여, 50대 여성의 주거이력이 어떠한 궤적을 그려왔고 그들의 주거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탐색적 수준에서 검토해보았다. 자료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세대의 주거생애사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유년시절의 주거경험은 정서적인 요소로 범주화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후의 주거경험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요소로 범주화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성년 이후의 주거는 결혼과 함께 임차주택으로 주거이력을 시작한 유형과 자가주택으로 시작한 유형 간에 개념 범주가 다르게 나타났다. 임차로 신혼을 시작한 경우, 셋방살이에 대한 기억과 이후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잦은 주거이동을 하며 이주 동기도 자발적이라기보다 임대료 인상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났으며, 자가주택으로 시

작한 유형은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성을 확보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의 주거이동도 자녀교육이나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발적 계기로 이동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현재의 주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양의 이사를 경험하였고, 2번째 주택부터는 이동에 발생하는 경제적 과정에 치우쳐 설명을 하였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 모두 높게 평가하였으며, 최종 주거로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 주택을 팔아 자식이 집을 마련해야 할 때가 오면 일부 경제적 부담을 질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자식을 위한 희생을 부모의 의무로 인정하는 가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세대적 특징과 함께 설명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령대를 50대 여성에 국한하여 조사하여, 연령 간 비교나, 성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거생애사의 세대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세대 연구 중, 50대 여성을 조사 대상으로 한 선행적 연구로서, 전체적인 연구목적으로서의 이론을 개발한다기 보다는 주요 주제나 개념(범주)를 찾고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참고문헌

1. 박재홍(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33집, pp. 257-296
2. 이희영(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2005), pp.120-148
3. 최영신(1999), 질적자료수집: 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2), pp. 1-22
4. Glaser, B. & A. Strauss.(1976),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5. Kohli, Martin. 1981, Biography: Account, Text, Method, pp. 61-75 in Bertaux, Daniel(ed.).
6. Maines, David R.(1992). Life Histories. pp.1134-38
7. Strauss, A. & J Corbin(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SAGE.